

李朝人物略傳 (六九) 英祖朝 (續)

；尹鳳朝 李存中 李象靖 李緯 洪啓

金滢植(抄)

英 祖 朝 (續)

尹鳳朝 字는 鳴叔이오, 號는 圃岩이니 坡平人이라. 文科大提學을 歷任하고 耆社에 入하니라. 從弟 鳳九의 字는 瑞應이오, 號는 屏溪니 遺逸로 進하야 官이 判書에 至하니라.

李存中 字는 敬以오, 號는 惕菴이니 完山人이라. 일즉 諸宰로 더부러 尹心衡去就를 論하다가 金尙魯를 忤하야 濟州에 遠配하다. 癸酉에 蒙宥하야 禮曹參議를 拜하니 存中이 疏辭不就하니라.

李象靖 字는 景文이오, 號는 大山이니 韓山人이라. 大夕山下에서 講道함으로 學者 | 大山先生이라 稱하더라. 弟光靖의 字는 休文이오, 號는 小山이니 經術로써 別提를 薦授하니라.

李緯 字는 熙卿이오, 號는 陶菴이니 牛峯人이라. 大提學, 吏曹判書를 歷任하다 所著는 四禮便覽, 三官記 等 諸書가 世에 傳行하나니라.

洪啓禧 字는 純甫오, 號는 淡窩니 南陽人이라. 通信使로 日本에 赴하고 吏曹判書를 歷任하다 均役廳을 主設하고 三韻聲彙를 著하니라.

俞拓基 字는 展甫 號는 知守齋니 杞溪人이라. 壬寅에 海島에 編配 하얏다가 英祖初에 有還하야 領議政을 拜하니라.

李宗城 字는 子固오, 號는 梧川이니 慶州人 左議政 台佐의 子라. 英祖 壬申에 右相을 拜하고 領議政에 至하니라.

鄭厚謙 字는 伯益이니 延日人이라. 右議政 羽良의 子 致達이 英祖의 女 和緩翁主를 尙하야 無育함으로 厚謙을 取하야 養子를 삼다. 丙申에 慶源에 遠竄하얏다가 丁酉에 賜死하니라.

林象德 字는 潤甫오, 號는 老村이니 羅州人이라. 文科, 吏曹正郎을 歷任하고 東史會綱을 著하니라.

黃順承 字는 得運이오, 號는 執菴이니 齊安人이라. 平壤에 世居하더라. 申

光洙, 關西樂府에 云한 바 「白首讀書黃固執」이 곳 順承이니라.

閔遇洙 字는 士元이오, 號는 蟾村이니 驪興人 이라. 遺逸로써 累徵不起 하니라.

金元行 字는 伯春이오, 號는 湊湖니 安東人 이라. 遺逸로써 贊善을 拜하니라.

宋能相 字는 士龍이오, 號는 雲坪이니 恩津人 이라. 遺逸로써 掌令을 薦授하니라.

李瀾 字는 子新이오, 號는 星湖니 驪興人 이라. 英祖朝에 監役을 薦授하되 不就하니라. 歲饑에 豆粥一盂, 豆醬一杯, 大豆黃卷□ 一碗을 設하야 家族으로 더부러 卒歲懽娛하고 名을 『三豆會』라 하더라. 天文, 星算, 律曆을 無不精通하고 所著는 道東錄, 藹憂錄, 禮說, 四七新編, 星湖僊說 等 諸書가 有하니라. 瀾이 일즉 慨然히 嘆曰 『百世無善治, 由於三弊, 尊君抑臣, 自嬴政始, 漢不能革, 用人尙閥, 自魏瞞始, 晉不能革, 文辭科試, 自楊廣始, 唐不能革, 三弊不去, 不足以言治.』라 하더라.

正 祖 朝

蔡濟恭 字는 伯規오, 號는 樊巖이니 平康人 이라. 英祖朝에 莊獻世子(正祖의 父) 代理한지 十年에 疾惡頗嚴하니 金尙魯, 洪啓禧 等이 心懷疑懼하야 內外에 搆煽하니 上이 備忘記를 下한지라. 時에 承旨 蔡濟恭이 入對曰 『此傳教, 非人臣所忍承聞者, 臣有死而已, 決不敢頒矣』라 하니라. 正祖 丁未에 尙魯等이 逆律을 施하고 濟恭을 拜하야 右議政을 삼으니라.

安鼎福 字는 配長이오, 號는 順菴이니 廣州人 이라. 遺逸로 進하야 木川縣監을 拜하다. 所著는 下學指南, 東史綱目 等 諸書가 有하니라.

吳載純 字는 文卿이오, 號는 醇菴이니 海州人 이라. 兵曹判書, 大提學을 歷任하니라.

洪良浩 字는 漢師오, 號는 耳溪니 豐山人 이라. 大提學, 判義禁府事を 歷任하니라.

洪大容 字는 德保요, 號는 湛軒이니 南陽人 이라. 其叔父의 使行을 隨하야 淸國에 遊할새 一時 名士 陸飛, 嚴誠, 潘庭筠輩가 다 推服하더라.

朴趾源 字는 仲美오, 號는 燕巖이니 潘南人 이라. 其族兄 明源의 使行을 隨하야 淸國에 遊하고 熱河日記 數十卷을 著하니라.